

목 차

주주총회소집공고.....	1
주주총회 소집공고.....	2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4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4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4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6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6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7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7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7
III. 경영참고사항	8
1. 사업의 개요.....	8
가. 업계의 현황	8
나. 회사의 현황	10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13
□ 재무제표의 승인.....	13
□ 이사의 선임.....	85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86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86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86
※ 참고사항	89

주주총회소집공고

2018년 03월 07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
대 표 이 사 : 한 영 석
본 점 소 재 지 :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00
 (전 화) 052-250-3114
 (홈페이지) <http://www.hmd.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 (성 명) 이시국
 (전 화) 052-250-3503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44기 정기)

제44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당사 정관 제 15조에 의거하여 제44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소액주주에게는 상법 제542조의4 및 당사 정관 제16조에 의거 본 공고로 소집통지를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8년 3월 28일(수요일) 오전 10시

2. 장 소 :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100
(주) 현대미포조선 내 한우리 회관

3. 회의 목적사항

가. 보고 사항 : 감사보고 및 영업보고

나. 부의 안건

제 1호 의안 : 제44기(2017.1.1-2017.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 2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

제 3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 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 5호 의안 : 임원퇴직금 규정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회사의 경영참고사항 등을 당사의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본점, 명의개서 대행회사(국민은행 증권대행부),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 제5항 규정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 행사(Shadow Voting)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주주님들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6.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당일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실 때에는 주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결권을 위임하실 경우에는 대리인이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기명·날인된 위임장을 접수처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안내사항

참석 주주님들을 위한 주주총회 기념품을 지급하지 아니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03월 07일

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
대표이사 한 영 석 (직인생략)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오세경 (출석률: 50%)	김갑순 (출석률: 92%)	노환균 (출석률: 100%)	김소영 (출석률: 80%)
			찬 반 여부			
2017년 1회차	17.02.09	<부의안건> ·제 43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 43기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HVS 채무보증 승인의 건 <보고사항> ·2017년 경영계획 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불 참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해당사항 없 음 (신규선임)
2017년 2회차	17.03.02	<부의안건> ·제 43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부의안건 승인의 건 <보고사항>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 ·2016년 하반기 공정거래자율준수 실태 점검 결과 보고 ·2016년 준법통제기준 운영실태 점검 결과 보고	찬 성 - - -	찬 성 - - -	찬 성 - - -	
2017년 3회차	17.03.24	<부의안건> ·대표이사 선임의 건 ·이사회 의장 선임 및 의장 직무대행 순서 결정의 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내부거래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017년 2분기 계열금융회사와 약관에 의한 거래한도 승인의 건	해당사항 없 음 (임기만료)	불 참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2017년 4회차	17.04.27	<보고사항> ·2017년 1분기 영업실적 보고		-	-	불 참
2017년 5회차	17.06.21	<부의안건> ·2017년 3분기 계열금융회사와 약관에 의한 거래한도 승인의 건 ·현대로보틱스(주) 주식 매각 승인의 건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2017년 6회차	17.08.01	<보고사항> ·2017년 상반기 영업실적 보고 ·2017년 상반기 공정거래자율준수 실태 점검 결과 보고		- -	- -	- -
2017년 7회차	17.08.18	<부의안건>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주), 현대건설기계(주) 주식매각 승인의 건		찬 성	찬 성	찬 성
2017년 8회차	17.09.21	<부의안건> ·2017년 4분기 계열금융회사와 약관에 의한 거래한도 승인의 건	찬 성	찬 성	찬 성	

2017년 9회차	17.10.11	<부의안건> ·현대중공업(주) 주식매각 승인의 건		찬성	찬성	불참
2017년 10회차	17.10.31	<부의안건> ·전자단기사채 발행한도 승인의 건 <보고사항> ·2017년 3분기 영업실적 보고		찬성	찬성	찬성
2017년 11회차	17.11.09	<부의안건> ·투자 지분 매각 승인의 건 ·유형자산 취득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17년 12회차	17.12.15	<부의안건> ·임원급여 지급규정 및 지급한도 승인의 건 ·2018년 1분기 계열금융회사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한도 승인의 건 ·2018년 주요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한도 승인의 건 ·2018년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대한 한도 승인의 건 <보고사항> ·2018년 경영계획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동내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감사위원회	오세경 위원장 김갑순 위원 노환균 위원	2017.02.09	·외부감사인의 감사절차 및 결과 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
	김갑순 위원장 노환균 위원	2017.03.24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 및 위원장 직무 대행 순서 결정의 건	가 결
	김소영 위원	2017.04.25	·2017년 1분기 검토결과 보고	-
	내부거래위원회	오세경 위원장 김갑순 위원 노환균 위원	2017.03.02	·내부거래책임자 임명의 건 ·2016년 거래상대방 선정기준 운영실태 보고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오세경 위원 김갑순 위원 노환균 위원	2017.03.02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가 결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사외이사	3명	1,700	185	62	

※ 상기 주총승인금액은 사내이사 1명 및 기타비상무이사 1명을 포함한 총 5명의 보수한도 총액임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일자	거래금액	비율(%)
부동산 매수	현대중공업(주) (계열회사)	2017.11.09	443	1.81% (매출액 대비)
주식의 처분	현대로보텍스(주) (계열회사)	2017.08.18	1,036	4.24% (매출액 대비)
주식의 처분	현대로보텍스(주) (계열회사)	2017.08.18	895	3.66% (매출액 대비)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 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현대중공업(주) (계열회사)	엔진 매입 등	2017.01.01~ 2017.12.31	3,133	12.8% (매출액대비)
HYUNDAI- VINASHIN SHIPYARD (계열회사)	외주가공 등	2017.01.01~ 2017.12.31	3,867	15.8% (매출액대비)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산업의 특성

▶ 조선부문 : 조선산업은 대형 건조설비를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설비투자가 필요한 장치산업이자 자본집약적 산업입니다. 건조공정이 매우 다양하고작업 특성상 자동화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수의 기술 및 기능 인력을 필요로 하는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높은 고용효과를 유발합니다. 또한, 사업특성상 전방산업인 해운산업의 시황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후방산업인 철강/기계산업 등에 대한 파급 효과가 매우 큽니다.

▶ 금융부문 : 금융부문은 자본의 증권화를 통하여 경제에 필요한 자금을공급하고, 일반 국민들에게는 증권에의 투자를 통한 재산증식의 기회를 제공하며,사회적으로는 자본의 효율적 배분의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산업입니다. 이러한 금융부문의경우에는 경제환경은 물론 정치, 사회, 문화, 국제관계, 환율 경기변동 등 다양한변수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느 다른 산업보다도 변동성이 큰 산업입니다

(2)산업의 성장성

▶ 조선부문 : 현재선박 과잉공급에 따른 해운 시황 위축과 중국 경제성장 둔화 전망등으로 선박 발주량이 침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유럽 등선진국 경제 회복 및 신흥개발국가들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세로 인해 해상 물동량이 꾸준히증가하고, 이에 따라선박 발주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환경 규제및 안전 규정 강화에 따라 친환경 고효율 선박으로의 선박 교체 수요도 지속적으로창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금융부문 : 금융부문의경우 2009년 2월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 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의 시행으로 금융투자업계는낮은 진입장벽과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위탁수수료율 등으로 치열한 경쟁이불가피하지만, 대형화와 특화전략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자본시장의 규모도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 조선부문 : 조선부문의 경우 수출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세계 경기 동향(환율, 금리, 유가 등)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또한 전방 산업인 해운 시장의동향이 수주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 금융부문 : 금융부문은 국내외 이자율, 환율, 경기 등의 경제환경 등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4) 경쟁요소

▶ 조선부문 : 40년 이상 쌓아온 풍부한 선박 건조 경험과 노하우, 다양한 상품군, 세계 유수 선사와의 거래 실적, 선박용 주요 기자재 자체 제작/조달, 지속적인R&D 투자활동을 바탕으로 조선부문에서 선도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 금융부문 : 금융부문은 국내외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고유재산 운용 및 선물·옵션·채권 등의 자기매매업무 경쟁력을 확대하여 다변화된 수익구조를 구축하였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사업부문별 영업의 개황

▶ 조선부문 : 2017년 글로벌 경제 회복, 해운물동량의 점진적인 증가 및 그 동안 발주를 주저해온 선사들의 일부 발주 실현으로 2017년은 신조 발주량은 CGT 기준 2016년 (1,302만 CGT) 대비 78% 증가한 2,325만 CGT를 기록하였습니다. 2016년 대비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하였으나, 이는 2016년 극심한 발주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아직 완전한 시장 회복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나 2018년 본격적인 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로 판단됩니다. 2018년은 유가 반등 기조에 따른 해양플랜트 시장의 회복 및 그동안 침체되어 있던 가스선 시장의 회복이 기대되는 바, 당사에서는 꾸준한 발주가 이어지고 있는 PC선 부문과 함께 경쟁 우위에 있는 가스선 시장에 영업력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 금융부문 : 금융투자업의 경우 신규 증권사의 진출, 위탁수수료율의 인하경쟁, 펀드보수율 차별화, 자기자본규모 등을 경쟁요소로 들 수 있으며, 그 외에도 신속 정확한 정보제공 능력, 고객 요구에 부합하는 금융상품의 개발능력, 고객만족경영, 리스크 관리능력 등이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합니다. 한편 자본시장법은 금융업종간의 업무장벽을 해소하고 무한경쟁의 자본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인수합병을 통한 대형화 및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탄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투자업계는 단순한 수탁매매수수료중심의 수익구조를 벗어나 다양한 상품을 기반으로 하는 안정적인 수익달성과 인수합병(M&A), 고유재산(PI)투자, 투자금융(IB) 등에서 신규 수익원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는 등 경쟁력 확보와 수익원 다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2) 시장점유율

※ 시장점유율 추이는 객관적인 자료출처를 통해 업체간 점유율이 비교 가능한 경우 기재하였습니다.

(단위: 천GT, %)

구 분	2017년		2016년		2015년	
	수주량	점유율	수주량	점유율	수주량	점유율
현대미포조선	1,027	5.2	680	15.4	1,770	8.1
현대중공업	6,364	32.5	1,260	28.5	5,705	26.2
대우조선해양	3,953	20.2	990	22.4	4,353	19.9
삼성중공업	3,677	18.8	561	12.7	4,093	18.7
현대상호중공업	4,178	21.3	800	18.1	3,937	18.0
STX조선	0	0.0	0	0.0	1,340	6.1
기타	375	1.9	133	3.0	580	2.6
국내조선계	19,574	100	4,424	100	21,778	100

*자료출처: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3) 시장의 특성

▶ 조선부문 : 전세계가 단일시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조선 산업에서 국내 조선소들은 생산성, 품질 등의 분야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시장 점유율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조선산업은 수출 의존도가 큰 산업으로서, 세계가 단일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한국조선은 선진국에 비해 노동력이, 후진국에 비해 자본 및 기술에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의 특성상 후발주자들의 점진적인 발전으로 인해 지속적인 신시장 개척과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며, 그에 따른 기술개발과 고부가가치 선종개발이 필요합니다.

▶ 금융부문 : 증권산업은 완전경쟁시장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증권업, 선물업, 자산운용업 등이 통합되면서 기존의 타업종에 속했던 금융회사들과의 경쟁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펀드판매이동제 시행, 펀드보수 및 위탁수수료 인하 등 서비스 경쟁요인이 확대되어 국내외 금융회사가 무한경쟁하는 시기가 도래하였습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 조선부문 : 당사는 우수한 설계인력, 높은 생산 효율성 및 체계적인 관리능력 등에서 강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고품질, 적기 인도"를 중심으로 쌓아 온 중형 선박 건조 분야에서의 독보적인 PERFORMANCE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 많은 선주사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비교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사와의 차별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는 주력 선종인 중소형 석유화학제품 운반선 및 중형 LPG 운반선 시장에 대한 지배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또한 고부가가치선 시장(LEGC, LNG 벙커링선, PCTC, CON/RO-RO, REEFER CONTAINERSHIP, ASPHALT CARRIER 등)에도 성공적으로 진출하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안정적인 일감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당사의 유능한 인재 및 뛰어난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미래 전략 선종인 중소형 LNG선, 중소형 복합가스 운반선 및 카페리선 등의 집중 수주 활동과 전 선종에 대하여 연료 저감(Eco Ship) 및 친환경(Green ship) 기술을 확대 추진하여 당사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으며, LNG/메탄올 연료 추진 선박 등 선주 요구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시장 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 금융부문 : 금융부문은 리서치를 기반으로 기업금융 및 퇴직연금분야의 사업을 확대하고, 선박금융을 활성화하여 업계 선도적인 위치를 확보할 것이며, 장외파생상품인가를 통한 경쟁력 제고 및 자산관리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해 명실상부한 자산관리형 금융투자회사로서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는 다양하고 고품질의 자산관리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5) 조직도

부 문	부 서
기획/품질	사업기획부, 품질경영부
기본설계	기본계획부, 구조설계부, 기본설계부
조선설계	종합설계부, 선체설계부, 선체생산설계부, 선장설계부
	배관설계부, 선실설계부, 기장설계부, 전장설계부
생산	선체가공부, 선체조립부, 선행의장부, 선행도장부
	온산공장부, 건조1부, 건조2부, 도장1부, 도장2부
	의장1부, 의장2부, 선실생산부, 기계의장부
	생산관리부, 시설보전부, 공사지원부, 시운전부
안전	안전팀, 환경보건팀
계약운영	계약운영1부, 계약운영2부
인사/총무	총무팀, 후생복지팀, 인사지원팀, 교육훈련팀, 노사협력팀
	협력사지원팀, 법무팀, 비상계획팀
재무/자재	재무성과분석팀, 예산관리팀
	기자재구매팀, 외주구매팀, 원자재시설구매팀, 자재지원부
베트남해외법인	고객지원, 기획/선행, 후행, 경영지원, 안전보건부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상기 "III. 1 사업의 개요" 참고.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 자본변동표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현금흐름표 · 주석

(1) 연결재무제표

1) 연결대차대조표(연결재무상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제 44 기 2017년 12월 31일 현재

제 43 기 2016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과 그 종속기업

(단위:천원)

과 목	제 44 (당) 기		제 43 (전) 기	
자 산				
I. 유동자산		6,776,200,577		6,546,316,620
현금및현금성자산	562,237,965		804,379,492	
단기금융자산	23,111,858		4,038,565,432	
매출채권및기타채권	234,125,564		534,966,449	
미청구공사	609,505,636		766,789,070	
재고자산	95,934,524		161,880,947	
파생상품자산	23,221,463		22,329	
확정계약자산	32,488		30,887,857	
당기법인세자산	252,289		9,399,198	
매각예정자산	5,080,518,635		-	
기타유동자산	147,260,155		199,425,846	
II. 비유동자산		1,543,238,140		2,680,000,328
관계기업투자	-		12,485,817	
장기금융자산	286,419,575		1,281,007,447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9,617,017		54,376,539	
투자부동산	-		1,324,236	
유형자산	1,089,746,626		1,126,344,466	
무형자산	3,112,333		178,850,328	
파생상품자산	5,074,341		-	
확정계약자산	40,221		2,441,810	
이연법인세자산	122,209,851		15,079,700	
기타비유동자산	27,018,176		8,089,985	
자 산 총 계		8,319,438,717		9,226,316,948

부	채			
Ⅰ. 유동부채		5,904,637,238		5,471,849,846
단기금융부채	462,385,871		4,324,317,944	
매입채무및기타채무	340,559,891		563,296,072	
선수금	11,164,356		1,903,165	
초과청구공사	548,001,987		496,812,027	
파생상품부채	37,627		65,021,333	
확정계약부채	16,840,620		-	
당기법인세부채	26,783,380		11,641,899	
매각예정부채	4,498,862,783		-	
기타유동부채	723		8,857,406	
Ⅱ. 비유동부채		75,660,470		1,496,077,759
장기금융부채	-		1,388,132,289	
장기매입채무및기타채무	5,724		109,849	
순확정급여부채	10,563,429		25,102,438	
비유동충당부채	49,359,235		43,527,125	
파생상품부채	40,221		2,441,810	
확정계약부채	5,074,341		-	
이연법인세부채	10,617,520		36,764,248	
부 채 총 계		5,980,297,708		6,967,927,605
자	본			
Ⅰ. 지배기업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2,216,776,263		2,142,454,423
자본금	100,000,000		100,000,000	
자본잉여금	82,500,492		82,500,492	
자본조정	(40,854,364)		(41,041,433)	
기타포괄손익누계액	356,265,955		721,303,335	
이익잉여금	1,718,864,180		1,279,692,029	
Ⅱ. 비지배지분		122,364,746		115,934,920
자 본 총 계		2,339,141,009		2,258,389,343
부 채 및 자 본 총 계		8,319,438,717		9,226,316,948

별첨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2) 연결손익계산서(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44 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제 43 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과 그 종속기업

(단위:천원)

과 목	제 44 기	제 43 기
I. 매출액	2,453,432,922	3,446,458,484
II. 매출원가	2,244,889,679	3,098,069,172
III. 매출총이익(손실)	208,543,243	348,389,312
IV. 판매비와관리비	100,594,363	157,318,955
V. 영업이익(손실)	107,948,880	191,070,357
VI. 금융수익	900,486,318	235,718,173
VII. 금융비용	186,570,121	218,803,627
VIII. 기타영업외수익	12,990,968	57,689,789
IX. 기타영업외비용	101,580,366	74,698,027
X.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733,275,679	190,976,664
XI. 법인세비용(수익)	171,774,448	40,470,442
XII. 계속영업당기순이익	561,501,230	150,506,222
XIII. 중단영업당기순이익	(116,344,510)	(110,906,513)
XIV. 당기순이익	445,156,720	39,599,709
XV. 기타포괄손익	(364,083,228)	433,239,928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세후기타포괄손익:	(364,596,593)	199,313,902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360,911,381)	198,394,246
파생상품평가손익	(16,925)	16,925
해외사업환산손익	(4,080,447)	902,731
지분법자본변동	412,160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세후기타포괄손익:	513,365	233,926,026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2,003,301	2,025,434
토지재평가이익	(1,489,936)	231,900,592
기타이익잉여금	-	-
XVI. 총포괄이익	81,073,492	472,839,637
XVII. 당기순이익의 귀속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436,933,693	34,572,727
비지배지분	8,223,027	5,026,982
XVIII. 총포괄이익의 귀속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74,134,771	467,470,987
비지배지분	6,938,721	5,368,650

XIX.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에 대한 주당이익		
계속영업주당이익	27,716원	7,333원
중단영업주당이익	(5,806원)	(5,599원)

별첨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3) 연결자본변동표

연 결 자 본 변 동 표

제 44 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제 43 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과 그 종속기업

(단위:천원)

과 목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비지배지분	총 계
	자본금	연결자본잉여금	연결자본조정	연결기타포괄 손익누계액	연결이익잉여금	소계		
2016.1.1(전기초)	100,000,000	82,500,492	(41,041,433)	290,639,412	1,242,884,965	1,674,983,436	121,823,141	1,796,806,577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	-	-	-	-	34,572,727	34,572,727	5,026,982	39,599,709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	-	198,307,217	-	198,307,217	87,029	198,394,246
해외사업환산손익	-	-	-	496,502	-	496,502	406,229	902,731
현금흐름위험회피	-	-	-	16,925	-	16,925	-	16,925
토지재평가이익	-	-	-	231,843,279	57,313	231,900,592	-	231,900,592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2,177,024	2,177,024	(151,590)	2,025,434
소유주와의 거래:								
배당	-	-	-	-	-	-	(590,240)	(590,240)
기타	-	-	-	-	-	-	(10,666,631)	(10,666,631)
2016.12.31(당기말)	100,000,000	82,500,492	(41,041,433)	721,303,335	1,279,692,029	2,142,454,423	115,934,920	2,258,389,343
2017.1.1(당기초)	100,000,000	82,500,492	(41,041,433)	721,303,335	1,279,692,029	2,142,454,423	115,934,920	2,258,389,343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	-	-	-	-	436,933,693	436,933,693	8,223,027	445,156,720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	-	(361,398,893)	-	(361,398,893)	487,512	(360,911,381)
해외사업환산손익	-	-	-	(2,244,246)	-	(2,244,246)	(1,836,201)	(4,080,447)
현금흐름위험회피	-	-	-	(16,925)	-	(16,925)	-	(16,925)
토지재평가이익	-	-	-	(1,728,957)	200,975	(1,527,982)	-	(1,527,982)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 요소	-	-	-	-	2,037,483	2,037,483	3,864	2,041,347
지분법자본변동	-	-	-	351,641	-	351,641	60,519	412,160
소유주와의 거래:								
배당	-	-	-	-	-	-	(887)	(887)
기타	-	-	187,069	-	-	187,069	(508,008)	(320,939)
2017.12.31(당기말)	100,000,000	82,500,492	(40,854,364)	356,265,955	1,718,864,180	2,216,776,263	122,364,746	2,339,141,009

별첨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4) 연결현금흐름표

연결현금흐름표

제 44 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제 43 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과 그 종속기업

(단위:천원)

과 목	제 44 기		제 43 기	
I.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679,329,217)		529,680,952
1.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672,722,857)		509,997,246	
(1) 당기순이익	445,156,720		39,599,709	
(2) 조정 등	(1,117,879,577)		470,397,537	
2. 이자의 수취	77,664,589		127,860,837	
3. 이자의 지급	(63,744,558)		(106,377,227)	
4. 배당금의 수취	3,909,463		7,639,537	
5. 법인세의 지급	(24,435,854)		(9,439,441)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741,371,281		107,626,036
단기금융자산의 감소	316,327,020		214,224,198	
기타채권의 감소	-		1,740,819	
관계기업투자의 감소	9,545,328		1,162,000	
장기금융자산의 감소	1,013,830,568		362,216,783	
장기기타채권의 감소	11,487,408		7,662,846	
유형자산의 처분	2,466,350		2,088,691	
무형자산의 처분	229,955		5,368,187	
단기금융자산의 증가	(314,313,399)		(214,251,181)	
기타채권의 증가	-		(192,150)	
관계기업투자의 증가	(6,100,000)		(1,000,000)	
장기금융자산의 증가	(203,425,966)		(232,090,234)	
장기기타채권의 증가	(6,977,115)		(2,397,619)	
유형자산의 취득	(65,423,456)		(30,248,679)	
무형자산의 취득	(750,306)		(1,588,926)	
연결범위변동으로 인한 현금의 감소	(15,525,106)		(5,068,699)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204,994,900)		(489,871,256)
단기금융부채의 증가	1,186,003,769		951,459,115	
장기금융부채의 증가	510,000,000		-	
비지배지분의 증가	893,159		2,082,821	
단기금융부채의 감소	(1,239,004,701)		(1,442,861,682)	
장기금융부채의 감소	(660,000,000)		-	
비지배지분의 감소	(2,887,127)		(551,510)	
IV.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2,962,217)		242,226
V.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		(96,226,474)		-
VI.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 (I + II + III+IV+V)		(242,141,527)		147,677,958
VII.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804,379,492		656,701,534
VIII.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562,237,965		804,379,492

별첨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5) 연결주석

제 44 기 : 2017년 12월 31일 현재

제 43 기 : 2016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과 그 종속기업

1. 일반사항

(1) 지배기업의 개요

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이하 "회사")은 1975년 각종 선박의 건조 및 수리 개조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1983년 12월에 주식을 한국거래소가 개설하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회사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거한 현대중공업그룹 계열회사이며, 회사의 본사와 주요시설은 울산광역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보고기간에 대한 연결재무제표는 회사와 회사의 종속기업(이하 "연결회사"), 연결회사의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7년 12월 31일 현재 현대삼호중공업 주식회사가 전체지분의 42.34%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 종속기업의 현황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에 속한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속기업명	주요 영업활동	소재지	결산월	소유지분율(%)	
				당기말	전기말
하이투자증권(주)(*)	증권중개업	대한민국	12월	85.32	85.32
하이자산운용(주)(*)	자산운용	대한민국	12월	99.99	99.99
현대이엔티(주)(*)	기타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대한민국	12월	100.00	100.00
현대선물(주)(*)	선물거래의 수탁 및 매매중개업	대한민국	12월	65.22	65.22
현대선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	기타금융	대한민국	12월	-	100.00
현대선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2호(*)	기타금융	대한민국	12월	100.00	-
하이일본고배당포커스펀드(*)	기타금융	대한민국	12월	50.72	57.26
하이퀀센멀티스트래티지전문사모투자신탁1호(*)	기타금융	대한민국	12월	71.11	50.00
Hyundai-Vinashin Shipyard Co., Ltd.(*)	선박 건조업	베트남	12월	55.00	55.00

(*) 간접소유를 포함한 지분율임.

(3) 연결대상범위의 변동

① 당기 중 신규로 연결재무제표의 작성대상회사에 속한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종속기업명	사유
현대선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2호	신규설립

② 당기 중 연결재무제표의 작성대상에서 제외된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속기업명	사유
현대선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	처분

(4)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정보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당기와 전기 중 요약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재무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기

(단위:백만원)

종속기업명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당기순손익	총포괄손익
하이투자증권(주)	5,018,002	4,314,685	703,317	731,331	6,281	7,149
하이자산운용(주)	63,769	14,652	49,117	20,817	4,343	5,357
현대이엔티(주)	23,290	13,100	10,190	80,068	(2,143)	(1,804)
현대선물(주)	211,523	168,386	43,137	29,784	(1,926)	(1,333)
현대선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2호	14,193	3	14,190	1	237	237
하이일본고배당포커스펀드	7,351	29	7,322	1,827	887	887
하이힘센멀티스트래티지전문사모투자신탁1호	7,042	187	6,855	2,460	(434)	(434)
Hyundai-Vinashin Shipyard Co., Ltd.	415,602	373,063	42,539	351,863	19,847	15,767

② 전기

(단위:백만원)

종속기업명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당기순이익	총포괄이익
하이투자증권주	5,021,808	4,325,641	696,167	717,740	1,347	1,511
하이자산운용주	63,046	12,403	50,643	23,063	7,032	6,149
현대이엔티주	22,651	10,657	11,994	96,254	2,477	3,576
Hyundai-Vinashin Shipyard Co., Ltd.	464,003	437,230	26,773	450,954	18,992	19,989
현대선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	71	-	71	128	88	88
하이일본고배당포커스펀드	5,637	95	5,542	1,023	669	669
하이퀀센멀티스트래티지전문사모투자신탁1호	10,659	485	10,174	8,378	1,062	1,062
현대선물주	154,976	110,506	44,470	39,164	79	90

2. 중요한 회계정책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연결회사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 1항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 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연결회사의 재무제표는 2018년 2월 9일자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2018년 3월 28일자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1) 측정기준

연결재무제표는 아래에서 열거하고 있는 연결재무상태표의 주요 항목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파생상품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당기순이익인식금융상품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매도가능금융상품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토지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확정급여부채

(2)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연결회사 내 개별기업의 재무제표는 각 개별기업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인 기능통화로 작성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재무제표는 지배기업의 기능통화 및 표시 통화인 대한민국의 통화(원화, KRW)로 작성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3) 추정과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보고기간 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기본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회계추정의 변경은 추정이 변경된 기간과 미래 영향을 받을 기간 동안 인식되고 있습니다.

2.2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1) 연결회사가 채택한 제·개정 기준서

연결회사는 2017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 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기준서 1011호 '건설계약', 기준서 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해석서 2115호 '부동산건설약정' 개정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및 제1038호 '무형자산' 개정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개정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 개정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2-2014

(2) 연결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공표되었으나 201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제·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결회사는 재무제표 작성시 다음의 제·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조기적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2015년 9월 25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는 소급 적용함이 원칙이나, 금융상품의 분류와 측정, 손상의 경우 비교정보 재작성을 면제하는 등 일부 예외조항을 두고 있고, 위험회피회계의 경우 옵션의 시간가치 회계처리 등 일부 예외조항을 제외하고는 전진적으로 적용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주요 특징으로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한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 기대신용손실에 기초한 금융상품의 손상모형, 위험회피회계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확대 또는 위험회피효과 평가방법의 변경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재무영향분석 및 회계정책 수립, 회계시스템 구축, 시스템 안정화 등의 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동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기간의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동 기준서에 따른 회계정책의 선택과 판단뿐 아니라 해당 기간에 연결회사가 보유하는 금융상품과 경제상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도입과 관련하여 금융상품 보고와 관련한 내부관리 프로세스 정비 또는 회계처리시스템 변경 작업에 착수하지 못하였고, 동 기준서를 적용할 경우 연결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재무적 영향을 분석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동 기준서의 주요 사항별로 연결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일반적인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할 경우 연결회사는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 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다음 표와 같이 금융자산을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하고, 복합계약이 금융자산을 주계약으로 포함하는 경우에는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지 않고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기준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구 분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	그 외의 경우
사업모형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목적	상각후원가 측정(*1)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2)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 목적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1)	
	매도 목적, 기타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1)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음(취소 불가).

(*2) 단기매매목적이 아닌 지분증권의 경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음(취소 불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대상으로 분류하기 위한 요건이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요건보다 엄격하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도입 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대상 금융자산의 비중이 증가하여 당기손익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2017년 12월 31일 현재 대여금 및 수취채권 876,550백만원, 매도가능금융자산 286,230백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된 현금흐름이 발생하고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상품만 상각후원가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2017년 12월 31일 현재 대여금 및 수취채권 876,550백만원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된 현금흐름이 발생하고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지 않는 지분상품은 최초 인식 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고, 동 포괄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recycling)되지 않습니다. 연결회사의 2017년 12월 31일 현재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지분상품은 286,230백만원입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계약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이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되지 않거나 매매가 주된 목적인 채무상품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하지 않은 지분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② 손상: 금융자산과 계약자산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는 발생손실모형(*incurred loss model*)에 따라 손상발생의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손상을 인식하지만,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리스채권, 계약자산, 대출약정, 금융보증계약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모형(*expected credit loss impairment model*)에 따라 손상을 인식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금융자산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증가 정도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3단계로 구분하여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이나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총당금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어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발생손실모형에 비하여 신용손실을 조기에 인식할 수 있습니다.

구분(*1)		손실충당금
Stage 1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2)	12개월 기대신용손실: 보고기간 말 이후 12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Stage 2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Stage 3	신용이 손상된 경우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거래에서 생기는 매출채권이나 계약자산의 경우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없다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해야 하고,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있다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음. 리스채권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음.

(*2) 보고기간 말 신용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최초 인식 시점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누적변동분만을 손실충당금으로 계상합니다.

연결회사는 2017년 12월 31일 현재 대여금 및 수취채권 876,550백만원을 보유하고 있고, 이 자산에 대하여 손실충당금 47,540백만원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2015년 11월 6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 제1011호 건설계약, 기업회계기해석서 제2031호 수익: 광고용역의 교환거래, 제2113호 고객충성제도, 제 2115호 부동산건설 약정, 제2118호 고객으로부터의 자산이전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등에서는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배당수익, 건설계약과 같은 거래 유형별로 수익인식기준을 제시하지만, 새로운 기업회계 기준서 제1115호에 따르면 모든 유형의 계약에 5단계 수익인식모형(① 계약 식별 → ② 수행의무 식별 → ③ 거래가격 산정 → ④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 ⑤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 인식)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재무영향분석 및 회계정책수립, 회계시스템 구축, 시스템 안정화 등의 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동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기간의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동 기준서에 따른 회계정책의 선택과 판단만이 아니라 해당 기간에 연결회사가 체결하고 있는 선박의 종류, 계약형태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도입 준비를 위하여 2017년 12월 31일 현재 회계부서 소속직원으로 구성되고 필요 시 실무 부서의 도움을 받는 TF팀을 구성하여 2017년 12월 31일 현재 상황 및 입수 가능한 정보에 기초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 시 재무제표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을 예비 평가중에 있으나, 동 기준서를 적용할 경우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재무적 영향을 분석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동 기준서의 주요 사항 별로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일반적인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수행의무의 식별

연결회사는 선박의 설계, 구매, 제작, 설치 및 시운전 등을 수행하여 고객이 주문한 선박 및 해양플랜트 구조물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 시 연결회사는 고객과의 계약에서 구별되는 수행의무를 식별해야 합니다. 각각의 수행의무를 한 시점에 이행하는지,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지에 따라 연결회사의 수익인식 시점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 주문 제작 선박

연결회사의 조선 사업부문은 고객이 주문한 선박을 건조하여 판매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1년~2년의 공사 기간이 소요됩니다. 연결회사는 투입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안분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르면 기업이 수행하여 만들어지거나 가치가 높아지는대로 고객이 통제하는 자산을 기업이 만들거나 그 자산 가치를 높이는 경우와 기업의무를 수행하여 만든 자산이 기업 자체에는 대체 용도가 없고, 지금까지 의무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이 기업에 있는 경우에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제1115호 도입 TF팀에서 잠재적인 영향을 예비 평가한 결과, 해당 자산이 기업 자체에는 대체용도가 없고,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③ 투입법을 이용한 진행률 측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르면 계약 개시 시점에 재화가 구별되지 않고, 고객이 재화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받기 전에 그 재화를 유의적으로 통제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전되는 재화의 원가가 수행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예상되는 총 원가와 비교하여 유의적인데다, 기업이 제 삼자에게서 재화를 조달받고 그 재화의 설계와 생산에 유의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고 예상한다면, 수행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사용한 재화의 원가와 동일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또한, 고객에게 통제를 이전하지 않은 재화나 용역은 진행률 측정에서 제외하고, 수행의무를 이행 시 고객에게 통제를 이전하는 재화나 용역은 진행률 측정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제1115호 도입 TF팀에서 잠재적인 영향을 예비 평가한 결과, 통제 이전 관점이 적용된 투입법에 의한 진행률 측정의 결과로 연결회사의 수익인식 시점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④ 변동대가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 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댓값 방법을 사용하여 변동 대가를 추정하고, 반품기한이 경과할 때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금액까지만 변

동대가를 거래가격에 포함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연결회사가 받았거나 받을 대가 중에서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 금액은 환불부채로 계상합니다.

연결회사의 제1115호 도입 TF팀에서 잠재적인 영향을 예비 평가한 결과, 변동대가의 적용으로 인하여 연결회사의 수익인식 시점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⑤ 거래가격의 배분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 시 하나의 계약에서 식별된 여러수행의무에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을 기초로 거래가격을 배분합니다. 연결회사는 각 수행의무의 개별 판매가격을 추정하기 위하여 '시장평가 조정 접근법'을 사용하며, 예외적으로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예상원가를 예측하고 적절한 이윤을 더하는 '예상원가 이윤 가산 접근법'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⑥ 유의적인 금융요소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 시 거래가격을 산정할 때, 계약 당사자들간에 합의한 지급시기 때문에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면서 유의적인 금융 효익이 고객이나 기업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 고객이 그 재화나 용역 대금을 현금으로결제했다면 지급하였을 가격을 반영하는 금액으로 수익을 인식해야 합니다.

연결회사의 제1115호 도입 TF팀에서 예비적으로 분석한 결과 고객으로부터 수령하는 선수금 등과 관련하여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있다고 보아 수익 인식 금액이 변동될것으로 예상됩니다.

(3) 유형자산 내용연수 변경 및 후속측정방법 변경

연결회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내용연수를 5년 단위로 재검토하며, 당기 중 유형자산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내용연수를 변경하였습니다. 회계추정의 변경 효과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주석 15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당기 중 연결재무제표상 유형자산으로 분류되는 토지에 대하여 후속측정방법을 원가모형에서 재평가모형으로 회계정책을 변경하였습니다. 회계정책의 변경효과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주석 15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3 유의적인 회계정책

연결회사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한 유의적인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주석 2.2에서 설명하고 있는 회계정책의 변경을 제외하고, 당기 및 비교표시된 전기의 연결재무제표는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 영업부문

연결회사는 최고경영의사결정자에게 보고되는 사업부문별로 공시되고 있습니다. 최고경영의사결정자는 영업부문에 배부될 자원과 영업부문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책임이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영업부문은 조선업과 금융업입니다.

최고경영자에게 보고되는 부문정보는 부문에 직접 귀속되는 항목과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항목을 포함합니다.

(2) 연결

① 사업결합

사업결합은 동일지배 하에 있는 기업실체나 사업에 대한 결합을 제외하고 취득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전대가는 일반적으로 식별가능한 취득 순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과 동일하게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의 결과 영업권이 발생되면 매년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영가매수차익이 발생되면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취득관련원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라 인식하는 채무증권과 지분증권의 발행원가를 제외하고, 원가가 발생하고 용역을 제공받은 기간에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전대가는 기존관계의 정산과 관련된 금액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기존관계의 정산금액은 일반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조건부대가는 취득일에 공정가치로 측정되고 있습니다. 자본으로 분류되는 조건부대가는 재측정하지 않으며, 그 후속 정산은 자본 내에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조건부대가가 자본으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 후속적으로 조건부대가의 공정가치 변동을 인식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피취득자의 종업원이 보유하고 있는 보상과 교환된 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의 경우, 취득자의 대체보상에 대한 시장기준 측정치의 전부 또는 일부는 사업결합의 이전대가 측정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피취득자에 대한 이전대가의 일부인 대체보상 부분과 사업결합 후 근무용역에 대한 보수 부분은 피취득자의 보상에 대한 시장기준 측정치와 사업결합 전 근무용역에 대한 대체 보상액을 비교하여 결정되고 있습니다.

② 비지배지분

비지배지분은 취득일에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에 대해 인식한 금액 중 현재의 지분상품의 비례적 몫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소유지분 변동은 자본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③ 종속기업

종속기업은 연결회사에 의해 지배되는 기업입니다. 연결회사는 피투자기업에 대한 관여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피투자기업에 대하여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있을 때 피투자기업을 지배합니다.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는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날부터 지배력을 상실할 때까지 연결 재무제표에 포함됩니다.

④ 지배력의 상실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다면,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종전의 종속기업에 대한 자산과 부채를 제거하고 종전의 지배지분에 귀속되는 지배력 상실 관련 손익을 인식합니다. 종속기업에 대한 잔존 투자는 지배력을 상실한 때의 공정가치로 인식합니다.

⑤ 지분법피투자기업에 대한 지분

연결회사의 지분법피투자기업에 대한 지분은 관계기업의 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계기업은 연결회사가 재무정책 및 영업정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지배하거나 공동지배하지 않는 기업입니다.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은 최초에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원가로 인식하고, 취득 후에는 지분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즉,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피투자자의 당기순손익 및 기타포괄손익 중 연결회사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부금액에 가감하고, 피투자자에게 받은 분배액은 투자지분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⑥ 내부거래제거

연결회사 내의 거래, 이와 관련된 잔액, 수익과 비용, 미실현손익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모두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결회사는 지분법피투자기업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 중 연결회사의 몫은 제거하고 있으며, 미실현손실은 자산손상의 증거가 없다면 미실현이익과 동일한 방식으로 제거하고 있습니다.

⑦ 동일지배하 사업결합

동일지배하에 있는 기업실체나 사업에 대한 결합은 취득한 자산과 인수한 부채를 최상위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상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이전대가와 취득한 순자산 장부금액의 차액을 자본잉여금에서 가감하고 있습니다.

(3) 현금및현금성자산

연결회사는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투자자산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되나,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인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현금성자산에 포함됩니다.

(4) 재고자산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이동평균법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착품은 개별법에 의한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5) 비파생금융자산

연결회사는 비파생금융자산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네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연결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파생금융자산은 최초인식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이 아닌 경우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에 가산하고 있습니다.

①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단기매매금융자산이나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한 금융자산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최초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만기보유금융자산

만기가 고정되어 있고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한 비파생금융자산으로 회사가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에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③ 대여금 및 수취채권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하고, 활성시장에서 거래가격이 공시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은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에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④ 매도가능금융자산

매도가능항목으로 지정되거나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또는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자산을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지분상품 등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⑤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할 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않고 이전하지도 아니한 경우, 연결회사가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도 않다면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금융자산을 계속 통제하고 있다면 그 양도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관련 부채를 함께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였으나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대부분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수취한 매각금액은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⑥ 금융자산과 부채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연결회사가 자산과 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고 있습니다.

(6)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시 계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후속적으로 매 보고기간 말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각각 아래와 같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① 위험회피회계

연결회사는 환율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통화선도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자산 또는 부채, 확정계약의 공정가치의 변동(공정가치위험회피)을 회피하기 위하여 일부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에 위험회피관계, 위험관리목적과 위험회피전략을 공식적으로 지정하고 문서화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문서에는 위험회피수단, 위험회피대상항목 및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과 그 후속기간에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의 변동을 위험회피수단이 상쇄하는 효과를 평가하는 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변동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변동과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변동은 위험회피대상항목과 관련된 포괄손익계산서의 같은 항목에 인식됩니다.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는 회사가 더 이상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하지 않거나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청산 또는 행사되거나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을 경우 중단됩니다.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 조정액은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된 날부터 상각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기타 파생상품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어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파생상품을 제외한 모든 파생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7) 금융자산의 손상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을 제외한 금융자산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 말에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이후에 발생한 하나 이상의 사건이 발생한 결과,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그 손상사건이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사건의 결과로 예상되는 손상차손은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에는 다음과 같은 손상사건이 포함됩니다.

- 금융자산의 발행자나 지급의무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 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의 불이행이나 지연과 같은 계약 위반
-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 또는 법률적 이유로 인한 당초 차입조건의 불가피한 완화
- 차입자의 파산이나 기타 재무구조조정 가능성이 높은 상태
- 재무적 어려움으로 당해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의 소멸
-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된 개별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의 감소를 식별할 수는 없지만, 최초인식 후 당해 금융자산 집합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측정가능한 감소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관측가능한 자료가 있는 경우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지분상품에 대하여는 추가로, 상기 예시 이외에 동 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취득원가 이하로 유의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 자산손상의 객관적인 증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손상차손을 측정하여 인식합니다.

①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은 장부금액과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손상차손을 측정하거나 실무편의상 관측가능한 시장가격을 사용한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 근거하여 손상차손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총당금계정을 사용하거나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후속기간에 손상차손의 금액이 감소하고 그 감소가 손상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이미 인식한 손상차손을 직접 환입하거나 총당금을 조정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은 유사한 금융자산의 현행 시장수익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로 측정하며,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이러한 손상차손은 환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③ 매도가능금융자산

공정가치 감소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매도가능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취득원가와 현재 공정가치의 차이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실 중 이전 기간에 이미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을 차감한 금액을 기타포괄손익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지분상품에 대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환입하지 않습니다. 한편, 후속기간에 매도가능채무상품의 공정가치가 증가하고 그 증가가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환입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8) 유형자산

토지는 독립적인 외부평가인이 평가한 금액에 기초하여 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재평가는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수행됩니다.

토지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역사적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고 이연법인세를 차감하여 "토지재평가이익"의 과목으로 자본에 가산됩니다. 그러나 동일한 자산에 대하여 이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감소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 증가액만큼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감소된 경우에 그 감소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나, 그 자산에 대한재평가이익의 잔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감소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토지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구 분	추정 내용연수	구 분	추정 내용연수
건물	25~50년	차량운반구	5~14년
구축물	20~45년	기타의유형자산	3~20년
기계장치	5~20년		

연결회사는 매 회계연도 말에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와 경제적 내용연수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조정하고, 자산의 장부금액이 추정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처분손익은 처분대가와 자산의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며, 손익계산서의 "기타수익", "기타비용"으로 표시됩니다. 유형자산 항목과 관련하여 자본에 계상된 재평가이익은 그 자산이 제거될 때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됩니다.

(9)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할 때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잔존가치를 영("0")으로 하여 아래의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이 예측가능하지 않아 당해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고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구 분	추정 내용연수	구 분	추정 내용연수
회원권	비한정	기타무형자산	5~50년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 말에 재검토하고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가 계속하여 정당한 지를 매 보고기간 말에 재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① 연구 및 개발

연구 또는 내부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 대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개발단계의 지출은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와 능력 및 필요한 자원의 입수가능성,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을 모두 제시할 수 있고,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기타 개발 관련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후속지출

후속지출은 관련되는 특정자산에 속하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증가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본화하며,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 및 상표명 등을 포함한 다른 지출은 발생 즉시 비용화하고 있습니다.

(10) 비금융자산의 손상

건설계약에서 발생한 자산,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한 자산, 재고자산, 이연법인세자산 및 매각 예정으로 분류되는 비유동자산을 제외한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매 보고기간 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며,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단,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또는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용가치는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을 화폐의 시간가치 및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조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특유위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며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손상차손은 현금창출단위에 속하는 자산 각각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 말에 자산에 대해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환입합니다.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1) 미청구공사 및 초과청구공사

미청구공사는 진행중인 건설공사에서 발주자에게 받을 금액 중 미청구한 금액의 합계를 의미하며,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한 금액에서 진행청구액과 인식한 손실을 차감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발생원가에는 특정 계약에 직접 관련된 원가와 계약활동 전반에 귀속될 수 있는 공통원가로 정상조업도에 기초하여 배부된 고정 및 변동간접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한 금액이 진행청구액을 초과하는 미청구공사 총액은 연결재무상태표에 미청구공사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진행청구액이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청구공사 총액을 연결재무상태표에부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12) 비파생금융부채

연결회사는 계약상 내용의 실질과 금융부채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를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와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연결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①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나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한 금융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최초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기타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부채는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타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후속적으로 기타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금융부채는 소멸한 경우 즉,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 한하여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13) 종업원급여

①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업원급여는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②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당기와 과거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가로 획득한 미래의 급여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재측정에 따른 변동은 발생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③ 퇴직급여: 확정급여제도

보고기간 말 현재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확정급여부채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부채는 매년 독립적인 계리사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산출된 순액이 자산일 경우,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 효익의 현재가치를 한도로 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보험수리적손익,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및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자산 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즉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연결회사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를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연차보고기간 초에 결정된 할인율을 곱하여 결정되며 보고기간 동안 기여금 납부와 급여지급으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변동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순이자비용과 기타비용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에 대한 효익의 변동이나 축소에 따른 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확정급여제도의 정산이 일어나는 때에 정산으로 인한 손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14) 총당부채

총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총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의무를 보고기간 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총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위하여 예상되는 지출

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총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 말마다 총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 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총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총당부채는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가 예상되는 경우에 과거의 하자보수경험에 따른 일정금액을 하자보수총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총당부채는 최초 인식과 관련 있는 지출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15) 온실가스배출권

① 온실가스 배출권

온실가스 배출권은 정부에서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과 매입 배출권으로 구성됩니다. 배출권은 매입원가에 취득에 직접 관련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그 밖의 원가를 가산하여 원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유하는 배출권은 무형자산으로, 단기간의 매매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는 배출권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으로 분류된 배출권은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으며, 단기간의 매매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는 배출권은 취득 후 매 보고기간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은 정부에 제출하거나 매각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더 이상 미래경제적 효익이 예상되지 않을 때 제거하고 있습니다.

② 배출부채

배출부채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정부에 배출권을 제출해야 하는 현재의무로서,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배출부채는 정부에 제출할 해당 이행연도 분으로 보유한 배출권의 장부금액과 보유 배출권 수량을 초과하는 배출량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는 데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출을 더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배출부채는 정부에 제출할 때 제거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2015년부터 배출권 할당 및 거래 제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가 하나의 계획기간이며 연결회사가 계획기간 중 부여받은 무상할당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톤)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무상할당 배출권	203,293	199,341	195,415	598,049

당기말 현재 담보로 제공한 배출권은 없으며, 당기 중 배출한 온실가스 배출 추정량은 120,144톤입니다.

(16) 외화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연결회사의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 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 말의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고,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 생기는 외환차이와 해외사업장순투자 환산차이 또는 현금흐름위

혐회피로 지정된 금융부채에서 발생한 환산차이를 제외한 화폐성항목의 환산으로 인해 발생한 외환차이는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7) 납입자본

보통주는 자본으로 분류하며 자본거래와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증분원가는 세금효과를 반영한 순액으로 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에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기주식의 과목으로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연결회사가 자기주식을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는 자본에서 직접 인식하고 있습니다.

(18) 수익

수익은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이나 자산의 사용에 대하여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매출에누리와 할인 및 환입은 수익금액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① 재화의 판매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되고, 판매된 재화의 소유권과 결부된 통상적 수준의 지속적인 관리상 관여와 효과적인 통제를 하지 않으며, 거래와 관련한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고, 수익금액과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원가 및 반품가능성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용역

용역의 제공에 따른 수익은 매 보고기간 말 그 거래의 진행기준에 따라 인식하고 있습니다. 진행률은 작업수행 정도에 근거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③ 건설계약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건설계약과 관련한 계약수익과 계약원가를 보고기간 말 현재 계약활동의 진행률을 기준으로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계약수익은 최초에 합의한 계약금액에 수익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고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공사변경, 보상금 및 장려금 등의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진행률은 수행한 공사의 누적계약원가를 추정 총계약원가로 나눈 비율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 회수가능성이 높은 발생한 계약원가의 범위 내에서만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총계약원가가 총계약수익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예상되는 손실을 즉시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9) 금융수익과 비용

금융수익은 매도가능금융자산을 포함한 투자로부터의 이자수익, 배당수익,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손익,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의 공정가치의 변동,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차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익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배당수익은 주주로서 배당을 받을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비용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의 공정가치의 변동,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차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차입금에 대한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기간의 경과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0)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세액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① 당기법인세

당기법인세는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과세소득은 포괄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서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을 제외하므로 포괄손익계산서상 손익과 차이가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미지급법인세는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을 사용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②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 말에 기업이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서는 연결회사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연법인세부채를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 가능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 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한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 말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지급될 보고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 말 현재 회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라 법인세효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동일 과세당국이 부과하는 법인세이고, 연결회사가 인식된금액을 상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당기 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고 있습니다.

(21) 주당이익

연결회사는 보통주 기본주당이익을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보고기간 동안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1)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

연결회사는 미래에 대해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의 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결회사의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다양한 국가의 세법 및 과세당국의 결정을 적용하여 산정되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주석33 참조).
- 세무상 이월결손금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의 자산성 검토는 향후 과세소득 추정에기초하여 결정됩니다(주석33 참조).
- 순확정급여부채의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방식에 의해 결정되는 다양한 요소들 특히 할인율의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주석21 참조).
- 총당부채는 과거 경험을 기반으로 한 추정 및 가정에 의해 결정됩니다(주석22 참조).
- 총계약수익은 최초에 합의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측정하지만, 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사변경, 보상금, 장려금에 따라 증가하거나 연결회사의 귀책사유로 완공시기가 지연됨에 따라 위약금을 부담할 때 감소될 수 있으므로 계약수익의 측정은 미래사건의 결과와 관련된 다양한 불확실성에 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공사수익금액은 누적발생계약원가를 기준으로 측정하는 진행률의 영향을 받으며, 총계약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공사기간 등의 미래 예상치에 근거하여 추정합니다(주석27 참조).
- 연결회사의 귀책사유로 완공시기가 지연됨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부담하면 계약수익금액이 감소될 수 있으므로 완공시기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과거 경험 등을 기반으로 연결회사가 부담할 지연배상금을 추정합니다(주석27 참조).

(2) 공정가치 측정

연결회사의 회계정책과 공시사항은 다수의 금융 및 비금융자산과 부채에 대해 공정가치 측정을 요구하고 있는 바, 연결회사는 공정가치평가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동 정책과 절차에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공정가치를 포함한 모든 유의적인 공정가치 측정의 검토를 책임지는 평가부서의 운영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재무담당임원에게 직접 보고되고 있습니다.

평가부서는 정기적으로 관측가능하지 않은 유의적인 투입변수와 평가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

니다. 공정가치 측정에서 중개인 가격이나 평가기관과 같은 제 3자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평가부서에서 제 3자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근거한 평가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 수준별 분류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유의적인 평가 문제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연결회사는 최대한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이 가치평가기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분류됩니다.

구분	투입변수의 유의성
수준 1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수준 2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수준 3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 투입변수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다른 수준으로 분류되는 경우, 연결회사는 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정가치 측정치 전체를 분류하고 있으며, 변동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에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간 이동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 시 사용된 가정의 자세한 정보는 아래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석 37: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4. 재무제표 승인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는 2018년 2월 9일자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2018년 3월 28일자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3월 20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 예정인 당사의 연결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별도 재무제표
1)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제 44 기 2017년 12월 31일 현재
제 43 기 2016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

(단위:천원)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과목	제 44 (당) 기		제 43 (전) 기	
자 산				
Ⅰ. 유동자산		2,336,011,627		2,109,415,742
현금및현금성자산	542,813,641		694,729,272	
단기금융자산	23,024,503		23,039,577	
매출채권및기타채권	385,780,656		263,896,291	
미청구공사	609,648,256		766,891,798	
파생상품자산	23,221,463		22,329	
확정계약자산	32,488		30,887,857	
재고자산	59,416,980		141,973,098	
매각예정자산	449,963,123		-	
기타유동자산	242,110,517		187,975,520	
Ⅱ. 비유동자산		1,422,017,921		2,599,563,926
장기금융자산	286,250,502		894,739,049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7,844,377		650,707	
종속기업투자	57,563,852		797,435,126	
유형자산	923,829,350		902,672,370	
무형자산	1,796,864		1,624,864	
파생상품자산	5,074,341		-	
확정계약자산	40,221		2,441,810	
사외적립자산	19,106,675			
이연법인세자산	120,511,739		-	
자 산 총 계		3,758,029,548		4,708,979,668
부 채				
Ⅰ. 유동부채		1,479,802,211		2,138,235,574
단기차입금	387,387,871		935,221,644	
매입채무및기타채무	494,355,554		633,483,747	
초과청구공사	543,803,103		492,715,606	
파생상품부채	37,627		65,021,333	
확정계약부채	16,840,620		-	
기타유동부채	10,594,056		1,944,579	

당기법인세부채	26,783,380		9,848,665	
II. 비유동부채		53,127,134		409,637,120
장기차입금	-		334,092,723	
장기매입채무및기타채무	5,724		49,849	
파생상품부채	40,221		2,441,810	
확정계약부채	5,074,341		-	
순확정급여부채	8,561,432		21,333,987	
총당부채	39,445,416		27,222,749	
이연법인세부채	-		24,496,002	
부 채 총 계		1,532,929,345		2,547,872,694
자 본				
I. 자본금		100,000,000		100,000,000
II. 자본잉여금		81,956,140		81,956,140
III. 자본조정		(12,349,048)		(12,349,048)
IV. 기타포괄손익누계액		359,758,080		724,112,908
V. 이익잉여금		1,695,735,031		1,267,386,974
자 본 총 계		2,225,100,203		2,161,106,974
부 채 및 자 본 총 계		3,758,029,548		4,708,979,668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2)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제 44 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제 43 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

(단위:천원)

과 목	제 44 (당) 기	제 43 (전) 기
I. 매출액	2,441,346,314	3,442,178,901
II. 매출원가	2,280,901,966	3,148,828,321
III. 매출총이익	160,444,348	293,350,580
IV. 판매비와관리비	78,858,736	129,350,015
V. 영업이익	81,585,612	164,000,565
VI. 금융수익	900,558,247	238,999,523
VII. 금융비용	182,882,276	214,465,670
VIII. 기타영업외수익	8,172,146	57,827,680
IX. 기타영업외비용	380,456,535	166,953,727
X.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426,977,194	79,408,371
XI. 법인세비용	515,567	39,184,251
XII. 당기순이익	426,461,627	40,224,120
XIII. 기타포괄손익	(362,468,398)	431,656,577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362,608,945)	197,974,775
현금흐름위험회피	(16,925)	16,925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1,685,455	1,764,284
토지재평가이익	(1,527,983)	231,900,593
XIV. 총포괄손익	63,993,229	471,880,697
XV.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단위:원)	21,385	2,017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제 44 기 (2017. 01. 01 부터 2017. 12. 31 까지)

제 43 기 (2016. 01. 01 부터 2016. 12. 31 까지)

(단위 : 천원)

과 목	제 44 기	제 43 기
-----	--------	--------

	처분예정일: 2018년 3월 28일	처분확정일: 2017년 3월 24일
I. 미처분이익잉여금	428,368,967	42,120,91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21,911	75,193
보험수리적 손익 등	1,886,429	1,821,598
당기순이익(손실)	426,461,627	40,224,120
II. 임의적립금등의 이입액	-	-
III. 합계 (I+II)	428,368,967	42,120,911
IV. 이익잉여금처분액	(428,300,000)	(42,100,000)
임의적립금의 적립	(428,300,000)	(42,100,000)
V.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68,967	20,911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4) 자본변동표

자 본 변 동 표

제 44 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제 43 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

(단위:천원)

과 목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총계
2016.1.1(전기초)	100,000,000	81,956,140	(12,349,048)	294,277,929	1,225,341,256	1,689,226,277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	-	-	-	-	40,224,120	40,224,120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1,764,284	1,764,284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	-	197,974,775	-	197,974,775
현금흐름위험회피	-	-	-	16,925	-	16,925
토지재평가이익	-	-	-	231,843,279	57,314	231,900,593
2016.12.31(전기말)	100,000,000	81,956,140	(12,349,048)	724,112,908	1,267,386,974	2,161,106,974
2017.1.1(당기초)	100,000,000	81,956,140	(12,349,048)	724,112,908	1,267,386,974	2,161,106,974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	-	-	-	-	426,461,627	426,461,627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1,685,455	1,685,455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	-	(362,608,945)	-	(362,608,945)
현금흐름위험회피	-	-	-	(16,925)	-	(16,925)
토지재평가이익	-	-	-	(1,728,958)	200,975	(1,527,983)
2017.12.31(당기말)	100,000,000	81,956,140	(12,349,048)	359,758,080	1,695,735,031	2,225,100,203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5)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

제 44 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제 43 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

(단위:천원)

과 목	제 44 (당) 기		제 43 (전) 기	
I.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31,041,110)		(208,726,179)
1.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1,103,838)		(203,407,836)	
(1) 당기순이익	426,461,627		40,224,120	
(2) 조정	(260,761,727)		226,142,921	
(3) 영업자산부채의 변동	(166,803,738)		(469,774,877)	
2. 이자의 수취	8,482,659		10,534,263	
3. 이자의 지급	(23,008,617)		(30,048,130)	
4. 배당금의 수취	556,477		7,198,053	
5. 법인세환급(납부)	(15,967,791)		6,997,471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745,903,516		137,666,742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308,241,116		213,139,830	
단기대여금의 감소	-		1,499,400	
장기대여금의 감소	-		4,500,600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처분	797,956,403		145,819,681	
보증금의 회수	301,408		647,764	
유형자산의 처분	2,381,819		1,986,796	
무형자산의 처분	-		3,427,187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308,226,043)		(212,165,279)	
보증금의 증가	(299,384)		-	
유형자산의 취득	(54,279,804)		(21,171,186)	
무형자산의 취득	(172,000)		(18,051)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865,163,496)		214,359,280
단기금융부채의 차입	954,682,405		939,854,115	
단기금융부채의 상환	(1,669,845,901)		(725,494,835)	
장기금융부채의 상환	(150,000,000)		-	
IV. 현금및현금성자산에대한환율 변동효과		(1,614,541)		
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151,915,631)		143,299,843
VI.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694,729,272		551,429,429
VII.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542,813,641		694,729,272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6) 별도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44 기 : 2017년 12월 31일 현재

제 43 기 : 2016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

2. 중요한 회계정책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회사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 1항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
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
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회사의 재무제표는 2018년 2월 9일자 이사회에서 승인예정이며, 2018년 3월 28일자 주주
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1) 측정기준

재무제표는 아래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무상태표의 주요 항목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파생상품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매도가능금융상품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토지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확정급여부채

(2)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회사의 재무제표는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인 기능통화로 작성되고 있습니다. 회사의 재무제표는 회사의 기능통화 및 표시통화인 대한민국의 통화(원화, KRW)로 작성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3) 추정과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보고기간 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기본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회계추정의 변경은 추정이 변경된 기간과 미래 영향을 받을 기간 동안 인식되고 있습니다.

2.2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1) 회사가 채택한 제·개정 기준서

회사는 2017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개정 기준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 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개정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 변동을 현금흐름에서 생기는 변동과 비현금거래로 인한 변동 등으로 구분하여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 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의 공정가치가 세무기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미실현손실에 대해서 일시적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기준서 제1112호 '투자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개정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이 기준서 제1105호에 따라 매각예정이나 중단영업으로 분류되더라도, 기준서 제111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약재무정보를 제외한 다른 항목의 공시는 요구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됐으나 201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았고, 회사가 조기 적용하지 않은 제·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개정

벤처캐피탈 투자기구, 유추얼펀드 등이 보유하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을 지분법이 아닌 공정가치로 평가할 경우, 각각의 지분별로 선택 적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며,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벤처캐피탈 투자기구 등에 해당하지 않아 상기 면제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준서 제1040호 '투자부동산' 개정

부동산의 투자부동산으로 또는 투자부동산에서의 대체는 용도 변경의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동 기준서 문단 57은 이러한 상황의 예시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건설 중인 부동산도 계정대체 규정 적용 대상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개정

현금결제형에서 주식결제형으로 분류변경 시 조건변경 회계처리와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공정가치 측정방법이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와 동일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해석서 제2122호 '외화 거래와 선지급·선수취 대가' 제정

제정된 해석서에 따르면, 관련 자산, 비용, 수익(또는 그 일부)의 최초 인식에 적용할 환율을 결정하기 위한 거래일은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날입니다. 또한, 선지급이나 선수취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대가의 선지급이나 선수취로 인한 거래일을 각각 결정합니다. 동 해석서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해석서의 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준서 제1116호 '리스' 제정

새로운 기준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 를 대체할 예정입니다. 이 기준서는 단일 리스이용자 모형을 도입하여 리스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고 기초자산이 소액이 아닌 모든 리스에 대하여 리스이용자가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도록 요구합니다. 리스이용자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료 지급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를 인식해야 합니다. 동 기준서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2019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개정 기준서 적용에 따른 영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2015년 9월 25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는 소급 적용함이 원칙이나, 금융상품의 분류와 측정, 손상의 경우 비교정보 재작성을 면제하는 등 일부 예외조항을 두고 있고, 위험회피회계의 경우 옵션의 시간가치 회계처리 등 일부 예외조항을 제외하고는 전진적으로 적용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주요 특징으로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한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 기대신용손실에 기초한 금융상품의 손상모형, 위험회피회계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확대 또는 위험회피효과 평가방법의 변경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재무영향분석 및 회계정책 수립, 회계시스템 구축, 시스템 안정화 등의 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동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기간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동 기준서에 따른 회계정책의 선택과 판단뿐 아니라 해당 기간에 회사가 보유하는 금융상품과 경제상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도입과 관련하여 금융상품 보고와 관련한 내부관리 프로세스 정비 또는 회계처리시스템 변경 작업에 착수하지 못하였고, 동 기준서를 적용할 경우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재무적 영향을 분석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동 기준서의 주요 사항 별로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일반적인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할 경우 회사는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다음 표와 같이 금융자산을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하고, 복합계약이 금융자산을 주계약으로 포함하는 경우에는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지 않고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기준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구 분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	그 외의 경우
사업모형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목적	상각후원가 측정(*1)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2)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 목적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1)	
	매도 목적, 기타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1)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음(취소 불가).

(*2) 단기매매목적이 아닌 지분증권의 경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음(취소 불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대상으로 분류하기 위한 요건이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요건보다 엄격하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도입 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대상 금융자산의 비중이 증가하여 당기손익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당분기말 현재 대여금 및 수취채권 1,026,319백만원, 매도가능금융자산 286,230백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된 현금흐름이 발생하고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상품만 상각후원가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당분기말 현재 대여금 및 수취채권 1,026,319백만원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된 현금흐름이 발생하고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지 않는 지분상품은 최초 인식 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고, 동 포괄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recycling)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당분기말 현재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지분상품은 286,230만원입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계약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이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되지 않거나 매매가 주된 목적인 채무상품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지 않은 지분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② 손상: 금융자산과 계약자산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는 발생손실모형(incurred loss model)에 따라 손상발생의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손상을 인식하지만,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리스채권, 계약자산, 대출약정, 금융보증계약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모형(expected credit loss impairment model)에 따라 손상을 인식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금융자산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증가 정도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3단계로 구분하여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이나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어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발생손실모형에 비하여 신용손실을 조기에 인식할 수 있습니다.

구분(*1)		손실충당금
Stage 1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2)	12개월 기대신용손실: 보고기간 말 이후 12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Stage 2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Stage 3	신용이 손상된 경우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거래에서 생기는 매출채권이나 계약자산의 경우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없다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해야 하고,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있다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음. 리스채권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음.

(*2) 보고기간 말 신용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최초 인식 시점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누적변동분만을 손실충당금으로 계상합니다.

회사는 당분기말 현재 대여금 및 수취채권 1,026,319백만원을 보유하고 있고, 이 자산에 대하여 손실충당금 47,540백만원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 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2015년 11월 6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 제1011호 건설계약,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31호 수익: 광고용역의 교환거래, 제2113호 고객충성제도, 제2115호 부동산건설 약정, 제2118호 고객으로부터의 자산이전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등에서는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배당수익, 건설계약과 같은 거래 유형별로 수익인식기준을 제시하지만, 새로운 기업회계 기준서 제1115호에 따르면 모든 유형의 계약에 5단계 수익인식모형(① 계약 식별 → ② 수행의무 식별 → ③ 거래가격 산정 → ④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 ⑤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 인식)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재무영향분석 및 회계정책수립, 회계시스템 구축, 시스템 안정화 등의 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동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기간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동 기준서에 따른 회계정책의 선택과 판단만이 아니라 해당 기간에 회사가 체결하고 있는 선박의 종류, 계약형태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도입 준비를 위하여 당분기말 현재 회계부서 소속직원으로 구성되고 필요 시 실무 부서의 도움을 받는 TF팀을 구성하여, 재무적 영향분석 중에 있습니다.

회사는 당분기말 현재 상황 및 입수 가능한 정보에 기초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 시 재무제표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의 예비 평가를 완료하였고, 현행 회계정책과의 예상되는 주요한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7년 12월 31일 기준 잠재적인영향의 예비 평가 결과는 향후 회사가 이용할 수 있는 추가 정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① 수행의무의 식별

회사는 선박의 설계, 구매, 제작, 설치 및 시운전 등을 수행하여 고객이 주문한 선박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 시 회사는 고객과의 계약에서 구별되는 수행의무를 식별해야 합니다. 각각의 수행의무를 한 시점에 이행하는지,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지에 따라 회사의 수익인식 시점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 주문 제작 선박

회사의 조선 사업부문은 고객이 주문한 선박을 건조하여 판매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1년~2년의 공사 기간이 소요됩니다. 회사는 투입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안분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르면 기업이 수행하여 만들어지거나 가치가 높아지는대로 고객이 통제하는 자산을 기업이 만들거나 그 자산 가치를 높이는 경우와 기업의무를 수행하여 만든 자산이 기업 자체에는 대체 용도가 없고, 지금까지 의무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이 기업에 있는 경우에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제1115호 도입 TF팀에서 잠재적인 영향을 예비 평가한 결과, 해당 자산이 기업 자체에는 대체용도가 없고,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③ 투입법을 이용한 진행률 측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르면 계약 개시 시점에 재화가 구별되지 않고, 고객이 재화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받기 전에 그 재화를 유의적으로 통제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전되는 재화의 원가가 수행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예상되는 총 원가와 비교하여 유의적이고, 기업이 제 삼자에게서 재화를 조달받고 그 재화의 설계와 생산에 유의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고 예상한다면, 수행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사용한 재화의 원가와 동일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또한, 고객에게 통제를 이전하지 않은 재화나 용역은 진행률 측정에서 제외하고, 수행의무를 이행 시 고객에게 통제를 이전하는 재화나 용역은 진행률 측정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제1115호 도입 TF팀에서 잠재적인 영향을 예비 평가한 결과, 통제 이전 관점이 적용된 투입법에 의한 진행률 측정의 결과로 회사의 수익인식 시점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④ 변동대가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 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댓값 방법을 사용하여 변동 대가를 추정하고, 반품기한이 경과할 때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금액까지만 변동대가를 거래가격에 포함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회사가 받았거나 받을 대가 중에서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 금액은 환불부채로 계상합니다.

회사의 제1115호 도입 TF팀에서 잠재적인 영향을 예비 평가한 결과, 변동대가의 적용으로 인하여 회사의 수익인식 시점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⑤ 거래가격의 배분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 시 하나의 계약에서 식별된 여러수행의무에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을 기초로 거래가격을 배분합니다. 회사는 각 수행의무의 개별 판매가격을 추정하기 위하여 '시장평가 조정 접근법'을 사용하며, 예외적으로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예상원가를 예측하고 적절한 이윤을 더하는 '예상원가 이윤 가산 접근법'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⑥ 유의적인 금융요소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 시 거래가격을 산정할 때, 계약 당사자들간에 합의한 지급시기 때문에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면서 유의적인 금융 효익이 고객이나 기업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 고객이 그 재화나 용역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했다면 지급하였을 가격을 반영하는 금액으로 수익을 인식해야 합니다.

회사의 제1115호 도입 TF팀에서 예비적으로 분석한 결과 고객으로부터 수령하는 선수금 등과 관련하여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있다고 보아 수익 인식 금액이 변동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3 유의적인 회계정책

회사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한 유의적인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주석 2.2에서 설명하고 있는 회계정책의 변경을 제외하고, 당기 및 비교표시된 전기의 재무제표는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 별도재무제표에서의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투자

회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입니다. 회사는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투자에 대한 투자자산에 대해서 기업회계기준서 제 1027호에 따른 원가법을 선택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환일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별도재무상태표에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을 적용하여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장부금액을 간주원가로 사용하여 측정하였습니다. 한편,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현금및현금성자산

회사는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투자자산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되나,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인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현금성자산에 포함됩니다.

(3) 재고자산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이동평균법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착품은 개별법에 의한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4) 비파생금융자산

회사는 비파생금융자산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네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파생금융자산은 최초인식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이 아닌 경우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에 가산하고 있습니다.

①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단기매매금융자산이나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한 금융자산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최초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만기보유금융자산

만기가 고정되어 있고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한 비파생금융자산으로 회사가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에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③ 대여금 및 수취채권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하고, 활성시장에서 거래가격이 공시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은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에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④ 매도가능금융자산

매도가능항목으로 지정되거나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또는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자산을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지분상품 등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⑤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할 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않고 이전하지도 아니한 경우, 회사가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도 않다면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금융자산을 계속 통제하고 있다면 그 양도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관련 부채를 함께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였으나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대부분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수취한 매각금액은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⑥ 금융자산과 부채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회사가 자산과 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고 있습니다.

(5)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시 계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후속적으로 매 보고기간 말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각각 아래와 같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① 위험회피회계

회사는 환율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통화선도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회피대상 위험으로 인한 자산 또는 부채, 확정계약의 공정가치의 변동(공정가치위험회피)을 회피하기 위하여 일부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에 위험회피관계, 위험관리목적과 위험회피전략을 공식적으로 지정하고 문서화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문서에는 위험회피수단, 위험회피대상 항목 및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과 그 후속기간에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 항목의 공정가치의 변동을 위험회피수단이 상쇄하는 효과를 평가하는 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 항목의 공정가치변동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변동과 회피대상 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 항목의 공정가치변동은 위험회피대상 항목과 관련된 포괄손익계산서의 같은 항목에 인식됩니다.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는 회사가 더 이상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하지 않거나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청산 또는 행사되거나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을 경우 중단됩니다.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 항목의 장부금액 조정액은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된 날부터 상각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기타 파생상품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어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파생상품을 제외한 모든 파생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6) 금융자산의 손상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을 제외한 금융자산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 말에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이후에 발생한 하나 이상의 사건이 발생한 결과,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그 손상사건이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 사건의 결과로 예상되는 손상차손은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에는 다음과 같은 손상사건이 포함됩니다.

- 금융자산의 발행자나 지급의무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 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의 불이행이나 지연과 같은 계약 위반
-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 또는 법률적 이유로 인한 당초 차입조건의 불가피한 완화
- 차입자의 파산이나 기타 재무구조조정의 가능성이 높은 상태
- 재무적 어려움으로 당해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의 소멸
-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된 개별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의 감소를 식별할 수는 없지만, 최초인식 후 당해 금융자산 집합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측정가능한 감소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관측가능한 자료가 있는 경우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지분상품에 대하여는 추가로, 상기 예시 이외에 동 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취득원가 이하로 유의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 자산손상의 객관적인 증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손상차손을 측정하여 인식합니다.

①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은 장부금액과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손상차손을 측정하거나 실무편의상 관측가능한 시장가격을 사용한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 근거하여 손상차손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총당금계정을 사용하거나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후속기간에 손상차손의 금액이 감소하고 그 감소가 손상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이미 인식한 손상차손을 직접 환입하거나 총당금을 조정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은 유사한 금융자산의 현행 시장수익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로 측정하며,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이러한 손상차손은 환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③ 매도가능금융자산

공정가치 감소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매도가능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취득원가와 현재 공정가치의 차이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실 중 이전 기간에 이미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을 차감한 금액을 기타포괄손익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지분상품에 대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환입하지 않습니다. 한편, 후속기간에 매도가능채무상품의 공정가치가 증가하고 그 증가가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환입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7) 유형자산

토지는 독립적인 외부평가인이 평가한 금액에 기초하여 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재평가는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수행됩니다.

토지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역사적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고 이연법인세를 차감하여 "토지재평가이익"의 과목으로 자본에 가산됩니다. 그러나 동일한 자산에 대하여 이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감소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 증가액만큼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감소된 경우에 그 감소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나, 그 자산에 대한재평가이익의 잔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감소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토지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구 분	추정 내용연수	구 분	추정 내용연수
건물	25~50년	차량운반구	5~14년
구축물	20~45년	기타의유형자산	3~20년
기계장치	5~20년		

회사는 매 회계연도 말에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와 경제적 내용연수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조정하고, 자산의 장부금액이 추정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처분손익은 처분대가와 자산의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며, 손익계산서의 "기타수익", "기타비용"으로 표시됩니다. 유형자산 항목과 관련하여 자본에 계상된 재평가이익은 그 자산이 제거될 때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됩니다.

(8)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할 때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잔존가치를 영("0")으로 하여 아래의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이 예측가능하지 않아 당해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고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구 분	추정 내용연수
회원권	비한정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 말에 재검토하고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가 계속하여 정당한 지를 매 보고기간 말에 재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① 연구 및 개발

연구 또는 내부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 대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개발단계의 지출은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와 능력 및 필요한 자원의 입수가능성,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을 모두 제시할 수 있고,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기타 개발 관련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후속지출

후속지출은 관련되는 특정자산에 속하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증가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본화하며,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 및 상표명 등을 포함한 다른 지출은 발생 즉시 비용화하고 있습니다.

(9) 비금융자산의 손상

건설계약에서 발생한 자산,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한 자산, 재고자산, 이연법인세자산 및 매각 예정으로 분류되는 비유동자산을 제외한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매 보고기간 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며,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단,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또는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용가치는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을 화폐의 시간가치 및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조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특유위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며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손상차손은 현금창출단위에 속하는 자산 각각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 말에 자산에 대해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환입합니다.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0) 미청구공사 및 초과청구공사

미청구공사는 진행중인 건설공사에서 발주자에게 받을 금액 중 미청구한 금액의 합계를 의미하며,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한 금액에서 진행청구액과 인식한 손실을 차감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발생원가에는 특정 계약에 직접 관련된 원가와 계약활동 전반에 귀속될 수 있는 공통원가로 정상조업도에 기초하여 배부된 고정 및 변동간접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한 금액이 진행청구액을 초과하는 미청구공사 총액은 재무상태표에 미청구공사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진행청구액이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청구공사 총액을 재무상태표에부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11) 비파생금융부채

회사는 계약상 내용의 실질과 금융부채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를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와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①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나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한 금융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최초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기타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부채는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타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후속적으로 기타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금융부채는 소멸한 경우 즉,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 한하여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12) 종업원급여

①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업원급여는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②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당기와 과거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가로 획득한 미래의 급여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재측정에 따른 변동은 발생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③ 퇴직급여: 확정급여제도

보고기간 말 현재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확정급여부채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부채는 매년 독립적인 계리사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산출된 순액이 자산일 경우,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 효익의 현재가치를 한도로 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보험수리적손익,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및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자산 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즉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회사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를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연차보고기간 초에 결정된 할인율을 곱하여 결정되며 보고기간 동안 기여금 납부와 급여지급으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변동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순이자비용과 기타비용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에 대한 효익의 변동이나 축소에 따른 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확정급여제도의 정산이 일어나는 때에 정산으로 인한 손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13) 총당부채

총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총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의무를 보고기간 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총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총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 말마다 총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 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총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충당부채는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가 예상되는 경우에 과거의 하자보수경험에 따른 일정금액을 하자보수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최초 인식과 관련 있는 지출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14) 온실가스배출권

① 온실가스 배출권

온실가스 배출권은 정부에서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과 매입 배출권으로 구성됩니다. 배출권은 매입원가에 취득에 직접 관련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그 밖의 원가를 가산하여 원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유하는 배출권은 무형자산으로, 단기간의 매매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는 배출권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으로 분류된 배출권은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으며, 단기간의 매매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는 배출권은 취득 후 매 보고기간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은 정부에 제출하거나 매각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더 이상 미래경제적 효익이 예상되지 않을 때 제거하고 있습니다.

② 배출부채

배출부채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정부에 배출권을 제출해야 하는 현재의무로서,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배출부채는 정부에 제출할 해당 이행연도 분으로 보유한 배출권의 장부금액과 보유 배출권 수량을 초과하는 배출량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는 데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출을 더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배출부채는 정부에 제출할 때 제거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2015년부터 배출권 할당 및 거래 제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가 하나의 계획기간이며 회사가 계획기간 중 부여받은 무상할당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톤)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무상할당 배출권	203,293	199,341	195,415	598,049

당기말 현재 담보로 제공한 배출권은 없으며, 당기 중 배출한 온실가스 배출 추정량은 120,144톤입니다.

(15) 외화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회사의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 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 말의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고,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 생기는 외환차이와 해외사업장순투자 환산차이 또는 현금흐름위험회피로 지정된 금융부채에서 발생한 환산차이를 제외한 화폐성항목의 환산으로 인해 발생한 외환차이는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6) 납입자본

보통주는 자본으로 분류하며 자본거래와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증분원가는 세금효과를 반영한 순액으로 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에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기주식의 과목으로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는 자본에서 직접 인식하고 있습니다.

(17) 수익

수익은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이나 자산의 사용에 대하여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매출에누리와 할인 및 환입은 수익금액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① 재화의 판매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되고, 판매된 재화의 소유권과 결부된 통상적 수준의 지속적인 관리상 관여와 효과적인 통제를 하지 않으며, 거래와 관련한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고, 수익금액과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원가 및 반품가능성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용역

용역의 제공에 따른 수익은 매 보고기간 말 그 거래의 진행기준에 따라 인식하고 있습니다. 진행률은 작업수행 정도에 근거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③ 건설계약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건설계약과 관련한 계약수익과 계약원가를 보고기간 말 현재 계약활동의 진행률을 기준으로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계약수익은 최초로 합의한 계약금액에 수익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고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공사변경, 보상금 및 장려금 등의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진행률은 수행한 공사의 누적계약원가를 추정 총계약원가로 나눈 비율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 회수가능성이 높은 발생한 계약원가의 범위 내에서만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총계약원가가 총계약수익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예상되는 손실을 즉시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8) 금융수익과 비용

금융수익은 매도가능금융자산을 포함한 투자로부터의 이자수익, 배당수익,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손익,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의 공정가치의 변동,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차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익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배당수익은 주주로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비용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의 공정가치의 변동,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차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기간의 경과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9)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세액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① 당기법인세

당기법인세는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과세소득은 포괄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서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을 제외하므로 포괄손익계산서상 손익과 차이가 있습니다. 회사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미지급법인세는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을 사용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②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 말에 기업이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서는 회사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 가능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 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한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 말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지급될 보고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 말 현재 회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라 법인세효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동일 과세당국이 부과하는 법인세이고, 회사가 인식된 금액을 상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당기 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고 있습니다.

(20) 주당이익

회사는 보통주 기본주당이익을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보고기간 동안에유통된 보통주 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습니다.

(21) 영업부문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 '영업부문'에 따라 영업부문과 관련된 공시사항을 연결재무제표에 공시하고 있으며, 동 재무제표에는 별도로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1)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

회사는 미래에 대해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의 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속기업투자 등의 손상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의 계산에 기초하여 결정됩니다(주석12 참조).
- 회사의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다양한 국가의 세법 및 과세당국의 결정을 적용하여 산정되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주석30 참조).
- 세무상 이월결손금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의 자산성 검토는 향후 과세소득 추정에 기초하여 결정됩니다(주석30 참조).
- 순확정급여부채의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방식에 의해 결정되는 다양한 요소들 특히 할인율의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주석19 참조).
- 총당부채는 과거 경험을 기반으로 한 추정 및 가정에 의해 결정됩니다(주석20 참조).
- 총계약수익은 최초에 합의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측정하지만, 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사변경, 보상금, 장려금에 따라 증가하거나 회사의 귀책사유로 완공시기가 지연됨에 따라 위약금을 부담할 때 감소될 수 있으므로 계약수익의 측정은 미래사건의 결과와 관련된 다양한 불확실성에 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공사수익금액은 누적발생계약원가를 기준으로 측정하는 진행률의 영향을 받으며, 총계약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공사기간 등의 미래 예상치에 근거하여 추정합니다(주석25 참조).
- 회사의 귀책사유로 완공시기가 지연됨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부담하면 계약수익금액이 감소될 수 있으므로 완공시기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과거 경험 등을 기반으로 회사가 부담할 지연배상금을 추정합니다(주석26 참조).

(2) 공정가치 측정

회사의 회계정책과 공시사항은 다수의 금융 및 비금융자산과 부채에 대해 공정가치 측정을 요구하고 있는 바, 회사는 공정가치평가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동 정책과 절차에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공정가치를 포함한 모든 유의적인 공정가치 측정의 검토를 책임지는 평가부서의 운영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재무담당임원에게 직접 보고되고 있습니다.

평가부서는 정기적으로 관측가능하지 않은 유의적인 투입변수와 평가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에서 중개인 가격이나 평가기관과 같은 제 3자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평가부서에서 제 3자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근거한 평가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 수준별 분류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유의적인 평가 문제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회사는 최대한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이 가치평가기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분류됩니다.

구 분	투입변수의 유의성
수준 1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수준 2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수준 3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 투입변수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다른 수준으로 분류되는 경우, 회사는 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정가치 측정치 전체를 분류하고 있으며, 변동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에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간 이동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4. 재무제표 승인

당사의 재무제표는 2018년 2월 9일자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2018년 3월 28일자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 상세한 주식사항은 3월 20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 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 제 44기: 해당사항 없음
- 제 43기: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선임

. 후보자의 성명 · 생년월일 · 추천인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김갑순	54.05.15	사외이사	없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총 (1)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 · 약력 ·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김갑순	딜로이트코리아 부회장	·성균관대 행정학 학사 ·서울대 행정대학원 ·前)서울지방국세청장 ·前)유진투자증권 사외이사 ·現)CJ제일제당 사외이사 ·現)딜로이트코리아 부회장	없음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없음.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 · 생년월일 · 추천인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김갑순	54.05.15	사외이사	없음	이사회
총 (1)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 · 약력 ·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김갑순	딜로이트코리아 부회장	·성균관대 행정학 학사 ·서울대 행정대학원 ·前)서울지방국세청장 ·前)유진투자증권 사외이사 ·現)CJ제일제당 사외이사 ·現)딜로이트코리아 부회장	없음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없음.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 · 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구 분	전 기	당 기
이사의 수(사외이사수)	5(3)	5(3)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17억원	17억원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없음.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가. 의안 제목

- 임원퇴직금 규정 승인의 건

나. 의안의 요지

- 임원퇴직금 규정(안)

내 용	비 고
-----	-----

제 1조(목적)

본 규정은 임원의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임원의 정의)

본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자를 말한다.

- 1.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이사대우, 감사
- 2. 기타 1호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제 3조(지급기준)

임원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은 별표의 임원 퇴직금 지급기준에 의하여산정한다.

제 4조(지급사유)

임원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한다.

- 1. 사망으로 인한 퇴직.
- 2. 의원 퇴직.
- 3.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
- 4. 임원 해임.

제 5조(산정기간)

퇴직금 산정기간은 임원 보임일로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그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된다. 단, 직원에서 신규 선임된 임원으로서 총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임원 재임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된다.

제 6조(지급제한)

임원 재임시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경우 퇴직금 할증 미적용 및 퇴직위로금 지급을 제한한다.

-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임무를 게을리 하여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경우
- 2. 정직 이상 징계, 비리행위 및 이에 준하는 불명예 사유로 퇴임 시

제 7조(기타)

기타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의 임금 지급기준 및 퇴직금 지급 기준을 준용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8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 임원 퇴직금 지급기준 (제 3조 관련)

1. 임원퇴직금 체계

- 퇴직금 퇴직금 : 산정기준액 × 총 지급률

○ 산정기준액 산정기준액 : 기본급 + 직책급

※ 상무보 승진 시 기존 퇴직금, 연월차 수당 등 기타 금품 청산

2. 임원퇴직금 지급률

1) 지급률(각 직위별 1년 근속 기준)

구 분		현 행	변 경(안)
대표이사		4.00	3.50
대표이사 외	사장이상	4.00	3.25
	부사장 / 전무	3.00	3.00
	상무	2.50	2.50
	상무보	1.00	1.00

※ 년 미만의 기간은 월할계산하며 월 미만의 일수에 대하여는 절상함.

2) 총 지급률 : 각 직위별 재임기간 × 각 직위별 지급률의 합

3. 퇴직위로금 기준

구 분	선임시 연령		비 고
	55세 미만	55세 이상	
상무 / 상무 보	8,000만원	5,000만 원	직원에서 임원으로 승진 하여 그룹내 퇴임하는 경 우에만 지급

4. 기타 사항

기타 본 지급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기준 준용.

단, 본 기준 시행에 따라 지급률이 감소하는 대상은 기존 기준 적용함.

※ 기타 참고사항

당사 임원 임금제도 개편에 따라 당사 정관 제30조 제2항의 임원퇴직금 규정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고자 함.

※ 참고사항

*당사는 주주님들의 원활한 참석을 위해 주주총회 자율분산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2018년 3월 28일(수) 오전 10시 주주총회 개최를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주주총회 집중일 개최사유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